

유 석 춘

이 책은 세계화를 부정하는 논리로 다음을 주장한다. 세계화가 강요하는 「무한경쟁」은 우리의 「일」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남겨두지 않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킨다. 왜냐하면 무한경쟁은 결국 「상품경쟁력 강화」를 전제로 진행되기때문에 경쟁의 「주체」인 우리의 노동을 「대상」으로 삼지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쟁은 값싼 원료와 입지조건을 따라 이루어 지므로 결국은 지구전체의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선진국」 독일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에게 매우 역설적인 쟁점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독일은 바로 자본주의 경쟁력을 토대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고 분단을 극복한 우리의 모



대안 아닌 '제안'에 그쳐

텔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독일의 지식인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는 「W

TO체제」에 위협을 느끼며 「유럽」의 단결과 대응을 호소하는 「10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있다.

이 책이 우리의 관심과 빛나 가기 시작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이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렵사리 이룩한 동아시아의 경제기적을 이들은 이중의 잣대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을 치켜 올리며 「자유무역」 체제를 따르지 않은 까닭에 동아

시아가 기적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 이들은 그러한 보호가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였던가를 질문하며 부정부패와 정치적 억압, 환경과 괴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동아시아의 기적을 비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 남미식의 개방도 안되고 동아시아식 보호도 곤란하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결국 저자들은 자기식의 대안만을 고집한다. 그러나 그 대안은 아직 유럽인이 수용한 대안도 아니다. 단지 저자들의 제안일 뿐이다. IMF에 구제금융을 구걸하고 신탁통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이들의 제안을 따르면 해결될 수 있을까? 갑갑증은 여전히 남는다. <연세대 교수·사회학>

세계화의 덫

마르틴-슈만 지음

강수돌 옮김

영림카디널·9천원

